

적폐 드러난 체육계, 변화의 바람 부나?

문재인 정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위해 대한체육회와 합의 이루지 못하면 갈등 계속될 듯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체육계 역시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권 창출의 도화선이 됐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체육계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정입학과 이권개입, 인사비리 등 각종 병폐로 인해 체육계 안팎은 끓고 또 끓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체육인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체육계를 비리 집단 불공정 세력으로부터 매도하고 탄압했다. 진심으로 위로드린다"며 "스포츠 정신에 핵심인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체육 분야는 사실 언제나 뒷전이었다.

체육정책과 관련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현상 유지나지, 대형 스포츠아젠트에 집중하는 인상이 짙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체육계의 오랜 숙원인 체육단체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뤘으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을 봉합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체육계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며 이런 행위의 통로로 활용했다.

따라서 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이례적으로 각 후보들간 체육정책 관련 공약을 비교·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 체육 특보를 두고 체육정책에 있어 대한민국 체육계가 처한 현실을 짚어내며 가시적인 공약들을 내놓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선거기간 체육인들의 공개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새 정부 체육 공약의 핵심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체육 단체 자율성 보장으로 정리 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확연 스포츠 강화와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도 빠질 수 없다.

다만 체육계의 공정성 확보와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썩은 뿌리를 뽑고 병든 줄기를 잘라내고, 시든 잎사귀는 뜯어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지만 개혁과 변화 과정에서 기존 체육계와 갈등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대선 당시 선거캠프 체육특보로 활동한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역시 체육정책 공약 이행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적폐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대고 정리해야 농단에 취약한 체육 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체육계는 한 목소리로 체육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예산을 늘리기 보다 스포츠로써 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배분을 통해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재정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당수 경기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각 경기단체를 산하에 두고 예산 편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로서는 달갑지 않다.

이용식 교수는 캠프 활동이 끝난 상황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그 동안 체육계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유독 정부로부터 간섭 받기를 거부했다"며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예산 배분과 지원을 이유로 산하 경기단체에 대한 끈임 없는 간섭과 통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기단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그 노력 만큼 지원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공정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체육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앞으로는 합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금의 대한체육회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전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련 세부 공약들을 가다듬고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당장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체육 관련 정책들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느냐의 문제도 있다.

체육계 인력에서는 새 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에 불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이전 정부도 체육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체육 분야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며 "역대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연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새 정부가 얼마나 체육관련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축구사랑나눔재단, 베트남 축구팬들에게 U-20 월드컵 입장권 선물

대한축구협회가 설립한 대한민족축구사랑나눔재단(이사장 이갑진)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해 FIFA U-20 월드컵 입장권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 대사관에 전달된 입장권은 총 100매로 사상 최초로 U-20 월드컵 본선에 오른 베트남 U-20 대표팀의 이번 대회 첫번째 경기 티켓이다.

베트남은 22일 천안에서 뉴질랜드와 1차전을 갖는다.

축구사랑나눔재단 이갑진 이사장은 "베트남의 본선 진출을 축하하며 이번 U-20 월드컵에서 선전하기를 바란다.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베트남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축구사랑나눔재단은 국내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축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14년부터는 라오스와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해 오고 있다.

/김민근기자

UAE, 아르헨티나 출신 바우사 감독 영입

아랍에미리트(UAE)가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사를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

UAE축구협회는 지난 12일 에드거르도 바우사(59·아르헨티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B조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UAE는 승점 9(3승4패)로 4위에 처졌고 바우사 감독 체제로의 변화를 선택했다.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이후 28년 만의 본선행이 눈앞에 온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표팀 사령탑에서 경질된 바우사 감독은 UAE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다.

/김민근기자

"EPL 승격만 해도 2470억 이상 수입"

챔피언십(2부리그) 소속의 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승격한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이익을 손에 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2일(한국시간) 세계 최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스포츠 비즈니스 그룹의 발표를 인용해 강등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챔피언십 클럽 팀이 EPL 승격으로 얻는 이익이 1억7000만 파운드(2470억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딜로이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리는 EPL 중계권료 분배금인 9500만 파운드와 다음 시즌 강등을 당했을 경우 받게 될 보조금 7500만 파운드를 합산해 수치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SPN은 "EPL 승격팀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이 걸린 경기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